

시온 주보

제2524호
2024년 10월 6일(나해)

연중 제27주일

성모님의 결혼

라파엘로 산치오
(Raffaello Sanzio, 1483-1520)
1504, 패널에 유채, 174×121cm
브레라 미술관, 이탈리아 밀라노



입당송 | 에스 4,17㉔-㉕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
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
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창세 2,18-24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6(㉔ 5 참조)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
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
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
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
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2독서 | 히브 2,9-11

복음환호송 | 1요한 4,12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
람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음 | 마르 10,2-16<또는 10,2-12>

영성체송 |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종으신 분.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오늘 말씀의 전례는 혼인의 신성함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가 됐습니다. 혼인에 실패하였고 도무지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해심이 부족한 종교가 원망스럽다며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취지는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생명의 본질을 일깨워주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모세가 이혼장을 써 주라는 계명을 남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아 혼자 된 여자가 생존을 위해 다른 남자와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전남편이 간통으로 고발하면 죽게 되던 폐해에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내린 조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세는 완고한 인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인간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존재인 배우자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혼인이라는 제도에 국한해서 듣기보다는 더욱 본질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점(히브 2,11 참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아예 언어도 생각도 배우지 못하며,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인간의 그런 특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삼라만상 가운데서도 마주할 상대가 없는 아담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화적인 요소보다 이 이야기의 본질에 몰두해 본다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한 분에게서 나온 존재로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그런 일치를 몸소 체험하는 현장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체적인 인간 생명체(자녀)의 탄생을 바로 혼인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혹여 자녀가 없어도 혼인에서 일치를 체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혼인에 실패했거나 사별한 분, 미혼으로 생을 마감한 분, 성직자와 수도자 등을 가리지 않으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등한 존재로 여기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 실천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외시키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증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맘에 드는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여기며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나를 참아주시는 우리 모두의 뿌리인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성모님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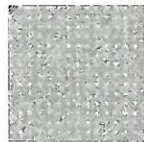
이 작품은 라파엘로 산치오의 <성모님의 결혼>이라는 성화로 《황금전설》에 실려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막대기에 꽃이 핀 사람이 마리아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막대기에만 꽃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화를 바라보며,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끊어버릴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계약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오늘의 달리기를 시작하며

박우리 안젤라 |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성모병원장



“단주를 시작한 지 꽤 여러 날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술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참기가 힘들고, 때때로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망쳐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온전히 술에서 벗어난 삶, 고요한 일상을 보내는 게 가능할지, 그 시기가 언제쯤 오는 것인지, 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인지 통 알 수 없다는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일찍 자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상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게 생긴 여유를 활용해 새벽 산책이나 할까 하면서 운동화를 챙겨 신고 밖으로 나왔던 것이 매일의 달리기로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워치로 기록도 측정해 보고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는 재미도 느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오늘은 뛰지 말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금방 숨이 가빠오고, 어제의 절반, 아니 반의반도 못 달릴 것 같다는 불안이 앞섭니다. ‘아직은 내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마음을 달래곤 했지만, 만 삼 년째 계속 운동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달리기는 두렵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리기와 중독 치료는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내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것,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수년간 단주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두렵고 간간이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든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잘 이겨내고 충실히 하루를 살아냈을 때의 성취감 또한 경험했기에 기꺼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다 마치고 난 후의 기쁨을 알기에 오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야고 1,4)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불어오는 선선하고 깨끗한 가을바람이 너무 고맙게 여겨지는 요즈음입니다. 시련은 두렵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맞이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음을 되새깁니다. 그렇기에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된다고 제 자신을 독려해 봅니다. 오늘 하루 묵묵히 자신만의 달리기를 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10월

공동 사명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 안에서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 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주로 온갖 것으로 화려하게 빛나며 주목받지만, 한편에는 아무도 들여다 보지도, 찾아보지도 않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20대의 청년 수민(가명) 씨는 꿈을 좇아 고향을 떠나와 노량진2동 고시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낯고 어두운 고시촌 만큼이나 순진한 청년의 서울살이가 녹록지 않아서일까요? “밥도 먹어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네요.” 20년 넘게 고시촌을 벗어나지 못한, 이제는 중년이 되어버린 수민 씨는 오랜 단절과 고립으로 낮아진 자존감, 우울증, 과대망상에 시달리며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만의 세계에 오랫동안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도 고시원은 에어컨을 오후에 딱 한 시간만 틀어줘요. 낮에는 숨이 턱턱 막혀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죠. 겨울엔 추운 한기가 또 얼마나 들이닥치는지... 없던 골병까지 생길 정도예요.” 살인적인 무더위를 견뎌내면, 금세 몸도 마음도 쫄쫄 얼어붙게 하는 강추위를 맞닥뜨려야 하는 삶은 또 다른 고시촌에 살고 있는 영만(가명) 씨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량진2동 고시촌에는 고시생 외에도 이렇듯 은둔 청년,

고립 중·장년, 독거 어르신처럼 갈수록 사회와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의 어둡고 짙 막힌 주거 환경은 무기력과 우울이라는 소용돌이로 사람의 영혼을 몰아넣습니다. 이는 곧 고립과 단절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건강과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며 ‘고독사’라는 위협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고유한 영혼이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지도 못한 채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과 관계 형성, 건강·심리 치료, 영적 돌봄 등 전인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청년 및 중장년층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나 외부 도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85년에 개관한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고,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이겨낼 힘을 기르도록 영적 돌봄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단한 삶에 지쳐 스스로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메마른 영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이 더욱 힘을 내어 저마다의 시린 사연들로 세상에서 고립되어 쓸쓸히 사라져 가는 아픈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10월 5일~11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노량진2동 고시촌'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손길’은 ‘전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에 숨어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종종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감싸주고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잘못이든 허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하느님의 계명과 질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악을 저질러도 하느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요. 이것은 정말 커다란 악의 유혹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865항)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 가득한 분이셨음은 분명합니다. 미움 받는 세리 출신의 마태오를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으며, (마태 9,9-13 참조) 간음한 여자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8,1-11 참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에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 2,13-22 참조) 또한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자 “왜 나를 치느냐?” (요한 18,23)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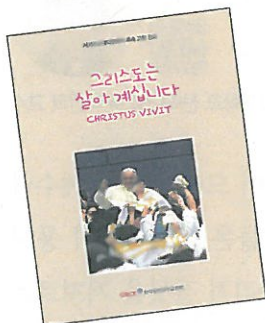
바로 여기서 사랑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이들은 스스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한편, 윤리적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과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마태 11,20)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에 숨어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낙태, 동성애 행위, 부정부패와 같은 세상의 잘못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선악의 기준을 편의에 따라 스스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은 사라지고, ... ‘편한 마음’이라는 기준에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일부 진리는 윤리적 판단의 주관적 사고에 적응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진리의 광채〉 32항)

누군가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여전히 보수적인 윤리를 고수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맞춰 변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혹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인지하고 성사를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이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반짝이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



여러 형태의 소외와 사회적 배척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갑니다.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비극 앞에서 우리 교회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극에 결코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삶의 어떤 현실들은 눈물로 씻긴 눈에만 보입니다. 자비와 연민은 눈물로도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64~80항을 읽어봅시다. 다른 이의 아픔에 동참하거나, 타인을 위해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나요? 눈물로 씻긴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떠했나요?



손민제 제노비오(동작동성당)

어느 날 보육원에서 청소하다가 문득 하느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두십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며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던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짜증과 연민,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들만의 순수함 덕분에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따스한 햇살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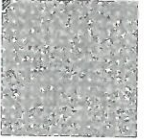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운영된 보육원이었는데, 그곳은 저로서는 모르고 지내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질문하시며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최유진 스텔라(길음동성당)

‘연민’이라는 감정이 제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큼니다. 돌아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눈물도 참 많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감정 캐릭터가 제 안에도 있다면,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 있는 친구는 아마 ‘연민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제 감정까지 소모해야 하는 일, 제 감정을 피곤하게 하는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무력감에 어느 순간부터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소식이나 기억해야 할 마음 아픈 사건들이 미디어에서 보도되어도 이를 외면하며 지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리라고 제 안에 ‘연민’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 연민이라는 감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구해다 주라는 의도가 아니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주길 바라셨을 것만 같습니다. 비극과 고통 앞에서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함께 비 맞아 줄 수 있는 당신의 젊은이로 살아가길 오늘도 청합니다.

“이는 남들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길을 식별하고, 남들이 위험만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67항)



이후의 인간 - 포스트 휴먼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엄청난 문화적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오늘날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이지요. 과학·기술 없이 현대인은 하루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경탄하고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마침내 과학의 지식이 진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현대인은 분명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 옛날 고대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본질적인 변화와 실존적인 현실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이런 질문과 씨름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의 흐름을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과거 및 현재와는 다른, 이후의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철학을 일컫는 말이지요. 한 마디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경향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히 차이나는 여러 흐름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간의 모든 자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조류를 트랜스휴머니즘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노화나 질병을 극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몸을 과학·기술과 결합시키면 슈퍼맨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진정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가 될까요? 그럴 리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지닌 모든 내면적 문제나 영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런 맹목적 주장을 넘어 기술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활용하려는 기술적 포스트휴머

니즘도 있습니다. 최소한 5-6가지 이상의 포스트휴머니즘적 경향이 피할 수 없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까지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인간 이해를 흔히 휴머니즘이라 부릅니다. 이 철학은 17세기 이래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흐름이지요. 이 사조는 근대 철학에 기반하여 인간을 이해하려 합니다. 근대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이성을 드높이는 계몽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서 고유한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에 의해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며 인간은 자연 안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 마침내 존재의 주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현대의 모든 체제는 이런 철학에 기반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형성된 인간 중심의 철학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다양한 흐름이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자리매김하려는 철학입니다. 현대의 온갖 위기 현상에서 필요한 철학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풍요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업적에 매몰되어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실존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대인의 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문화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을 새롭게 이해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감내하며 초월하려는 '이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6년 10월 7일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67세)
- 1943년 10월 7일 김윤근 요셉 신부(65세)
- 1948년 10월 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 2009년 10월 11일 최광연 모세 신부(73세)
- 2017년 10월 11일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80세)

알림 접수: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운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청 알림

143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신의주 본당
문의: 02)727-2420

향심기도 7박8일 집중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49만원
때: 10월11일(금) 17시~18일(금) 점심식사 후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명상의집(우이동)
문의: 010-4565-8898

2024 중고등부 학생 피정(학교사목부)

주제: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상: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선착순 45명)
때: 10월25일(방과 후)~27일까지
곳: 용인 새감 영성의 집 / 문의: 02)742-4151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yccs.or.kr/cell)

순교자현양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신심미사(34회)
때: 10월8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때: 10월19일(토) · 10월20일(일) · 10월22일(화)
곳: 마원성지, 진안리성지, 여우목성지, 연풍순교성지
신청: 10월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s.or.kr) 선착순 접수 / 문의: 02)2269-0413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환경사목위원회

1) 제1회 하늘땅물벗 전국대회
대상: 하늘땅물벗 회원 및 협력회원
주제: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 (Hope and Act with Creation)
때, 곳: 10월9일(수) 10시30분~16시30분,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주최: 하늘땅물벗 한국협의회
주관: 하늘땅물벗 서울교구넷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2) 제67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17일(목) 11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강당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78, 2283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 심리 특강 및 미사
때, 곳: 10월12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3층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 30주년 기념미사 및 세미나

내용: 기념세미나(발제1 '기후위기의 시대, 교회 우리 농촌살리기운동의 의미와 역할, 발제2 '서울대교구 우리 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과제와 방향), 기념미사
때, 곳: 10월10일(목) 14시~17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 문의(사전접수): 02)2068-3766, 02)727-2277
반드시 사전 접수 바랍니다

사목직장사목팀

1) 제20회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양대회
내용: 복음특강 및 찬미의 시간, 장엄미사 등
대상: 서울시 가톨릭공직자 및 가족, 퇴직자
때, 곳: 10월12일(토) 13시~17시, 광진구청 대강당
문의(신청): 02)727-2078 기관별 교우회 총무
2)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피정)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선옥 개인전: 1전시실
이종석 개인전: 2전시실
2024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선정작가 박해나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9일(수)~17일(목)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영성강의

때: 10월28일~11월18일 매주(월) 19시30분~21시(4주)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회비 없음) / 문의: 02)777-2013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강	10월28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모신심영성 / 조동원 신부(가톨릭신학대학 교수)
2강	11월4일(월) 오후 7시30분~9시 현대 영성이 토마스 머튼과의 만남 박재찬 신부(베네딕도회 왜관 본원장)
3강	11월11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와 영성 기경호 신부(작은형제회한국관장)
4강	11월18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 이나시오 성인의 생애와 영성 이규성 신부(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장)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10월7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10월10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집전: 김현진 신부(폴로비아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5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온라인: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녹화방송 1개월 간 수강 가능)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생명의 교육'을 위한 나눔 콘서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생명의 교육'을 실천하는 가톨릭 교육자 초대
때, 곳: 10월19일(토) 14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대상: 가톨릭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가톨릭 교육자
내용: '생명의 교육인 가톨릭교육이란 무엇인가?'
'가톨릭 교육자의 삶과 음악 나눔'
주관: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 문의: 02)460-7625
주최(신청): 가톨릭학교교육포럼(blog.naver.com/kcasef)

훈인교리, 예비신자 교리 대표자 피정, 구역반장 피정

1) 서울대교구 훈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훈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 예비 신자 교리 대표 봉사자 피정
때: 11월19일(화)~20일(수), 성 앵베르 센터(1박2일)
대상: 예비 신자 교리 대표 봉사자 및 임원(본당별 2인 이내) / 회비: 1인 5만원(11월5일까지 선착순 100명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3) 구역반장 피정
때, 곳: 1차 11월21일(목)~22일(금) 1박2일, 2차 11월28일(목)~29일(금) 1박2일, 성 앵베르 센터
대상: 구역장 · 반장 / 회비: 1인 8만5천원(11월7일까지 접수) 선착순 100명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인문단체 알림

모임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0월24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0월13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노들담 수녀회 청년 피정-기도하고 노동하라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20명 / 회비: 8만원
 때, 곳: 10월26일(토) 10시~27일(일) 15시, 노들담 생태영성의 집(강화) / 문의: 010-3930-6730

성지순례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탐방

때: 국내 12월7일~10일(부산 8곳·마산 6곳), 12월 14일~17일(대전 23곳)·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국외 2025년 2월7일~11일(베트남 성지·수도원)
 문의: 010-3807-1784 라이스돌(왜관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0월25일~27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피아골 피정

피아골 피정	11월29일~30일	문의: 010-
대구교구 성지	11월22일~23일	3712-8119

12사초지 성령기도회

미사·안수 / 문의: 010-7393-7924

때, 곳: 매주(월) 14시,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10월7일	강요셉 신부	10월14일	김종일 신부
10월21일	자체기도회	10월28일	최영준 신부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피정 및 강의

1)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문의(접수): 02)3276-7794(ciskorprov@gmail.com)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배움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문의(접수): 022)3276-7799(iispress12@gmail.com)

10월10일(목)	죽음과 꿈(홍기령 교수)	14시, 예수
11월14일(목)	희망의 순례자들(송봉모 신부)	회센터 성당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전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18일(금)~21일(월)·11월15일(금)~18일(월)·12월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헤로데에게 치명한 갓난아기는 피로써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과연 우리는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0월12일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부부 나들이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강사: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10월12일(토) 14시~13일(일) 17시, 아론의 집
 계좌: 신험 131-022-218086 가정선교회(입금 후 연락)
 회비: 20만원(1부부)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목주 성월 로사리오 피정: 10월14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윤창호 신부,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2) 신바람 나는 신앙 생활: 10월30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한연희 신부,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3) 위령성월 추모 피정: 11월4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이상희 신부,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제주 면령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10월28일~30일·12월7일~9일·12월13일~15일, 한라산 눈꽃산행 2025년 1월17일~19일·1월 23일~25일, 추자도포항 성지순례 11월3일~6일·11월 18일~21일·11월24일~27일·12월1일~4일·3월1일~4 일·3월9일~12일,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한라산·해남·해돋이)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1월1일~3일·11월7일~9일·11월21일~23일·12 월1일~3일·12월6일~8일·12월14일~16일·2025년 1 월11일~13일(한)·1월16일~18일(한), 추자도 포함 11 월16일~19일·11월25일~28일·3월13일~16일, 연말 연시 12월29일~1월1일(한라산·해남·해돋이) / 문의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템나 음악원(주최, 신촌)

단기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

이 있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진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때: 11월4일~14일(월~목) 19시~21시 / 회비: 10만원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성물·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

화, 토론·글쓰기, 사진, 바리스타, 코딩 등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전과목), 수능합습지도, 기타

지도 가능한 분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U

사제와 함께하는 가톨릭독서아카데미 강좌

영성독서지도사 양성 / 문의: 010-8477-6688

내용: 영적독서 과정 6주 /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대상: 신자들의 영적성숙 및 교회 봉사 희망자

때: 10월17일부터(목)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 회비: 10만원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 1차 10월28일(월)~11월28일(목)

17시, 전기 2차 1월6일(월)~23일(목) 17시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

법·88학점(수업료의 50%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https://gscl.catholic.ac.kr/gsc/index.do)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2025년 회년맞이 특강·희망을 희망하다

때: 10월24일~11월7일 매주(목) 19시30분(3주)

곳: 사랑의 힘 지하 강당(전철 2·5호선 명동포구청

역 4번 출구) / 문의: 02)333-9898 한국CLC

1강(10월24일)	시, 희망을 읽다	김기석 목사
2강(10월31일)	철학과 음악, 희망을 듣다	최대환 신부
3강(11월7일)	그림, 희망을 보다	장동훈 신부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참 나'를 찾아가는 내면아이 10월22일(화) 10시~12시

마음여행-10월 특강 회비: 2만원 / 강사: 이양희

어른이 되어서 읽는 10월18일~11월8일 매주(금)

'어린이왕자'-인문학 강좌 10시~12시(4회기)

모집

제11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0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곳: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전철 4호선 명동역

6·7번 출구)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10월20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미사

선교문화의날 미사 / 문의: 010-2691-4895
 때, 곳: 10월12일 오후 2시, 성령선교수녀회(주최)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0월12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10월만 특강 없이 오후 2시 미사 시작
 때, 곳: 10월7일(월) 14시, 국군중앙교좌성당(전철 4호선 산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 문의: 031)243-6171
 때, 곳: 10월12일(토) 10시~16시, 천진암 성지
 미사: 이성호 주교, 이한택 주교, 전국사제단 공동집전 / 주최: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안내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지원 전문심리상담 제공기관
 곳: 돈암동 / 문의: 010-2199-3439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접수: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
 물 참조 / 문의: 031)850-1427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성바오로수도회 레벤복스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주제: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때: 10월24일(목) 14시 / 문의: 010-2557-1361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미아동) / 강사: 이수연 작가

제27회 슈발리에 마을 축제 / 문의: 010-2817-3101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 회비: 10만원
 때: 10월18일(금)~20일(일) / 9월9일부터 선착순 접수
 주최: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부산 본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병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5년 중립동약현성당 혼인예식

추첨일: 10월20일 오후 3시(안내 후 추첨)
 곳: 중립동약현성당 / www.yakhyeon.or.kr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카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62-1891 / 주의사항-2025년도 1월~3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 받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토 순교성지, 서곶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순교자현양음악회 초대

제목: 아! 최양업 토마스 2
 연주: 가톨릭시니어합창단 / 연출: 심준보
 지휘: 이상희 / 반주: 홍정희
 때, 곳: 10월19일(토) 12시30분, 서소문성지 콘솔
 레이선홀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주최: 성모니카교회음악원·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신정3동성당 방호원 모집

대상: 신자로 시설관리·방호·영선·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 문의: 02)2060-8051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곳: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분야: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10월20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10월20일(일)까지 접수 / 이메일 문의
 제출 서류·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직원모집 참조

관리국 자산관리팀	건축법규검토, 건축행정, 대관업무 계약직 1명(관련 경력 및 자격증 우대,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생명위원회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터패밀리' 프로젝트 계약직 1명(사업홍보·행정 담당) / 복지·사회공헌사업 유경험자 우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센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0월19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10월19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0월12일(토) 13시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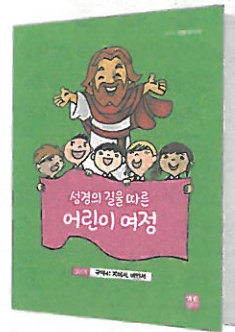


신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박재신 지음
바오출판사 | 196쪽 | 1만5천원
문의: 010-2254-3283

이 책은 가톨릭 신앙에 기반을 둔 '유엔아이(Understanding and Insight)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불편함이 아닌 당연함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신간

성경의 길을 따른 어린이 여정

5단계 구약4: 지혜서, 예언서

생활성서사 편집부 지음
생활성서사 | 128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기존의 교리 교육 위주의 교재와는 달리 성경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구성한 주일학교 어린이 교재이다. 새로이 출간된 '구약4: 지혜서, 예언서' 편은 지혜의 말씀이 담긴 욥기, 시편, 잠언 등과 예언자들의 행적과 신앙을 담은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등을 어린이들이 친숙하고 재밌게 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간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에르메스 론키 지음
바오로딸 | 192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을 따라가며, 우리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묵상서다. 곧 일상의 사물과 공간들, 집, 문턱, 부엌 등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와 배경이 되고 우리 삶 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 일상 가운데서 하느님 현존을 알아보도록 이끌어준다.



신간

사제, 수도 성소의 심리학

미하엘 센마르토니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08쪽 | 2만3천원
문의: 02)740-9718

성소는 하느님과 끊임없는 인격적 만남과 대화 안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인식하고 복음을 따르며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성직자·수도자를 지망하는 피양성자들과 그들을 동반하고 지도하는 양성자들의 신앙과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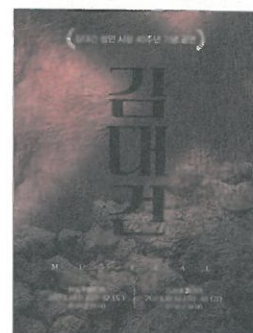
cpbc 방송

 시청
큐알(QR) 스캔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방송 일시: 10월 6일·10월 13일·10월 20일·10월 27일 (주일) 9시~10시
문의: 02)2270-2612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으로 향했던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생애와 조선 국경을 눈앞에 두고 43세의 일기로 선종하실 때까지의 여정을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했다. 전문 성우들의 목소리와 한국적인 음악, 생생한 효과음이 더해져 200여년 전 주교님의 여정을 생동감있게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김대건

때: 1차 10월 11일(금)~12일(토)
2차 10월 17일(목)~18일(금)
곳: 1차 영등포아트홀 · 2차 서강대 메리홀
공연시간: 15시 · 19시 / 전석 무료
플레이티켓(<https://buly.kr/GvUqUJ>)에서 예매
문의: 02)3789-7702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담은 창작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신부님의 시성 4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이 뮤지컬은 수입이 끊긴 영세한 프로덕션 기획팀이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현대와 과거를 넘나들며 신부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연성회 야외행사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 : 천진암성지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여성구반장회합 : 10월 13일(주일) 12시 / 소성전

◎ 성소후원회 미사 : 10월 15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여성울프레야 야외행사

일시 : 10월 15일(화)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 : 벽초지수목원 & 마장출렁다리

◎ 바오로시니어대학 가을소풍

일시 : 10월 18일(금) 오전 8시 성당출발

장소 : 마재성지

문의 : 세실리아 시니어학장 (010-2035-2581)

◎ 안산자락길 걷기(남성구역)

일시 : 10월 26일(토) 오전 11시 ~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마당에 모여 출발

◎ 중고등부 가을소풍

일시 : 10월 27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장소 : 서울랜드 / 회비 : 20,000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학년 담당 선생님 전화 or 카톡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30분미사는 없고,

10월 26일(토) 오후 3시 주일학교통합미사입니다.

◎ 2024 연희동 청년 음악회

한푸름 청년 성가대와 임마누엘 홀리챔버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가을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 11월 9일(토) 오후 7시 / 대성전

※ 11월 9일(토) 오후 6시미사는 없습니다.

◎ 2024년 4분기 전신자 성서책 읽기

1.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

(부제 : 쉽게 풀어 쓰는 기도 이야기)

2. 영혼의 성

3. 완덕의 길

※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0월 6일(주일) **오늘**까지

◎ 10월 9일(수)은 06시 미사만 있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9. 2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3	789 (39.4%)	757 (37.8%)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정자 안나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9월 23일~29일)

익명	이십만원	이예영	이만원
곽선모	오천원	익명	삼십육만원
박옥남	오만원	송명자	일십만원
은희봉	오만원	익명	이만원
김향수	삼십만원	임희옥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6주일)

교무금11,287,000원

주일헌금5,822,800원

입당	271	봉헌	513,210,340	성체	180,178,198	파견	12
----	-----	----	-------------	----	-------------	----	----



주님은 한 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